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3. 6.(수) 10:00 < 3.6.(수) 석간 > 배포 2024. 3. 5.(화)

청년들과 함께하는 새벽배송 현장 점검

- 민생토론회(1.22) 후속, 새벽배송 전국확산을 위한 점검 및 격려
-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첫번째 산업·통상·에너지 릴레이 현장 행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지난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에서 발표한 새벽배송 전국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3.6.(수) 오전, 온라인 새벽배송 현장인 SSG 닷컴 풀필먼트(Fulfillment) 센터(경기 김포 소재)를 방문하였다.

오늘 방문은 산업부 2030 자문단도 동행했는데, 자문단은 청년 보좌역(단장)을 포함하여 민간기업·공공기관 재직자, 학생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고, 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맞벌이부부, 1인 청년가구의 증가로 온라인 쇼핑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유통업계는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 주요 유통업 매출증가('24.1월, 8.2%) : 온라인 16.8% 증가, 오프라인 0.3% 감소 (산업부)

SSG닷컴은 빠른 배송을 위해 수요예측, 최적 배송경로 산출 등에 인공지능(AI) 등을 적용하여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은 김포에 있는 2개 풀필먼트 센터에서 가까운 서울, 인천 등 수도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 소비자도 이렇게 편리한 새벽배송의 혜택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할 경우 신규투자 없이도 기존 점포를 풀필먼트 센터로 활용하여 새벽배송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

SSG닷컴은 전국 90여 개의 이마트 점포에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PP센터, Picking & Packing Center)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맞춰 새벽배송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정부가 지난 1.22.(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영업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며, “새벽 배송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맞벌이 부부 및 1인 청년가구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지방 정주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최근 사과, 배 등 과일 물가 상승이 서민 가계에 크게 부담이 되고 있는 바, 과일, 채소 등 신선신품 가격 안정을 위해 SSG닷컴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총괄>	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	책임자	과 장	김정기	(044-203-4380)
		담당자	사무관	황인택	(044-203-4389)
		담당자	사무관	정원우	(044-203-4389)
	개혁 T/F팀	책임자	팀 장	유 은	(044-203-5190)
		담당자	사무관	유형종	(044-203-5191)
		담당자	주무관	한승진	(044-203-519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